2026 홍익대 파이널

제 0 강 202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가)~(다)에서 설명된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라)의 사례가 그것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하시오. (800±100자)

(가) 인간은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타인의 호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내게 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 모든 거래의 의미이다.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는다.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 굽는 사람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의존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본을 사용해서 노동을 유지하는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자본을 그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노동, 즉 그 생산물이 가장 큰 양의 화폐나 다른 재화와 교환될 수 있게 하는 노동에 사용하려고 힘쓸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공공 이익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없고 또 자신이 그런 이익을 얼마나 많이 추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해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을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도이고, 또 국내 산업이 최대 가치를 올리도록 유도하여 자기 이익을 올리려는 목적에 그렇게 한다.

개인이 공공 이익에 매진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를 위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이 의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좇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더 잘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공공 이익을 취해 상거래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사회에 많이 기여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허세는 상인들 사이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그런 주장을 하는 상인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만류하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나) 독일어에서는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들의 의미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예컨대 Frau라는 말은 예전에 귀족 여성을 가리켰지만 점차 일반 여성을 가리키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누군가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사회에 잠재되어 있으며, 그것이 개별 화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조금 더 경멸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Frau 같은 표현들의 의미 가치 하락은 "여성을 비난하라"가 아닌, 오히려 "여성을 찬양하라"의 원칙 때문에 생겨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서양처럼 기사적 전통[1]이 남아 있는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정중한 행동 예법이 존재한다. 남성이 여성의 외투 입는 것을 도와주

고, 의자를 먼저 내 주며, 담뱃불을 붙여 주는 식이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한 이러한 행동 예법의 일환으로, 여성과 직접 말을 할 때나 여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낮은 종류의 표현보다는 좀 더 고상한 문체나 사회 계층에 속하는 표현을 골라 쓰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해 언급하려고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은 "여성을 비난하라"가 아니라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인지 의심스러울 경우 차라리 한 단계 높은 표현을 선택하라"가 된다.

그런데 이처럼 본래 격조 높은 단어가 격식이 덜 요구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고상한 단어가 점차 일상적인 표현이 되고, 기존의 일상적이었던 단어는 의미 악화를 겪게 된다. 그 결과 요즘 레스토랑에서는 화장실 팻말로 Damen(숙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Frauen(Frau의 복수형)은 공공시설에서 사용되는 문체에 더 어울리는 표현이 되었다.

1) 기사적 전통: 중세 기사들의 행동 규범으로, 약자 보호, 여성 배려, 명예 중시 등을 강조하는 문화

(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기반의 가상 공간이 허용되면서 인간의 공간 이용 방식과 생활 양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1]을 통해 공간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최단 경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A국의 한 연구진은 A국과 해외 대도시의 운전자 GPS 경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운전자들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최적 경로를 선택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경로를 선택하고, 이러한 정보가 여러 서비스 간에 공유되지 않는 문제와 맞물려 결과적으로 교통 흐름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교통 체증 시간의 약 15~30%가 운전자들의 빠른 경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1)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라) 2007년, B국은 국민들의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축 습관과 자산 축적을 장려하는 국민 퇴직 저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B국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보조금 1,000달러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1)를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가입 대상자들을 해당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시켰다는 것이다.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이 방식은, 사람들이 선택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부담을 피하고자 기존 설정을 유지하려는 행동 경향을 반영한다. 자동 가입된 근로자들 중 탈퇴한 사람의 수는 전체 가입자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6월 약 23만 9천 명이었던 탈퇴 인원은 2024년 6월 기준 약 18만 9천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 인센티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제 0 강 2026학년도 모의논술

○ 출제 의도

<문제 1>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또는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모이고 반복될 때 사회 차원에서 의도치 않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세 가지 제시문으로부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현상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원리를 발견하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인간의 삶과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는데, 본 문항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현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원리를 발견하도록 한다는 점,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을 인간의 행동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가)~(다)를 읽고 이들 제시문에서 설명된 사회현상이 '① 개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한 선택이 ②여러 사람에 의해 반복됨으로써, ③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가)~(다)에서 설명된 사회현상이 결과의 긍·부정성, 그리고 개인의 의도와 실제 나타난 결과 사이의 모순성 여부 등에서 차이를 지닌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라)에서 설명된 사례는 개개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목표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시문 (가)~(다)에 나타난 공통점, 즉 개인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뿐인데 그것이 모이면 개개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회현상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실제 사례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고 보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나)는 루디 켈러의 『언어 변화』에서 소개된 독일어 여성 지칭 명사의 의미 가치 하락에 대한 설명을 발췌·편집한 것이다. 고교 교육 과정의 수준 범위 내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을 발췌하였고, 독일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 내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시문 (다)의 첫 번째 단락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이고, 두 번째 단락은 이기적인 운전이 교통 체증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의 논문과 그 내용을 다룬 기사 내용을 발췌·편집한 것이다. 일상적인 예를 다루고 있으나, 낯설 수 있는 용어에는 주석을 달아 수험생들이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라)는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의 『넛지』에서 소개된 뉴질랜드 국민 퇴직 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하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현황에 대해 설명한 자료의 내용을 더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경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금 등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 고교 교육 과정의 수준 범위 내에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제시문 (가)~(다)에서 설명된 세 가지 사회현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후, 이와 제시문 (라)에서 설명된 사례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포착하여 설명하는 문제이다.

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다)를 읽고 이들 제시문에서 설명된 사회현상이 '①개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한 선택이 ②여러 사람에 의해 반복됨으로써, ③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제시문 (가)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앞부분에서는 ①개인이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두 번째 단락 뒷부분과 세 번째 단락에서는 ②와 ③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③이러한 개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의도가 없지만 ②개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좇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잘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위의 세 가지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나)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독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 언급할 때 고상한 문체, 고상한 사회 계층과 관련된 표현을 골라 쓰는 것이 하나의 행동 예법으로 자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개인이 여성에 대해 언급하려 하는데 단어 선택에 의심이 갈 때는 ①예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피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 한 단계 높은 표현을 선택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②이처럼 본래 격조 높은 단어가 격식이 덜 요구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③고상한 단어가 점차 일상적인 표현이 되고 기존의 일상적인 단어는 의미 악화를 겪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 역시 이 내용을 토대로 위의 세 가지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 이때 언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현상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것도 다른 사회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제시문 (다)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①운전자가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고자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경로를 선택하는데, ②많은 운전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므로 ③이들이 바라지 않는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위의 세 가지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제시문 (가)~(다)에서 포착되는 차이점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세 제시문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가령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제시문에서 설명된 결과가 그 현상과 관련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긍·부정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의도와 실제 나타난 결과 사이에 간극과 모순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결과의 긍·부정성을 비교하면, 제시문 (가)의 결과인 공공의 이익은 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관여한 개인들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반면 제시문 (다)의 결과인 교통 체증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나)의 결과인 독일어 여성 지칭 명사의 의미 하락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인지도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래 더 고상한 느낌을 주던 단어의 의미 가치가 하락하는 변화를 겪는다고 해도 또 다른 표현이 그 고상한 느낌을 전달하며 대신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지가 변하게 될 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의미 변화가 언어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성격을 띤다.

다음으로 개인의 의도와 실제 나타난 결과 사이의 모순성 여부를 비교하면, (가)의 결과인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의도인 '이익 추구'와 상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나, (나), (다)의 결과인 '고상한 단어의 의미 가치 하락'과 '교통 체증'은 개개인의 의도가 '고상한 단어를 써서 여성을 예우하는 것',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둘 사이에 상충 또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제시문 (가)~(다)에 대해 분석한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시문 (라)가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제시문 (라)에서는 B국이 국민들의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목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는 방법, 즉 가입 대상자들을 국민 퇴직 저축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시키고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면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사람들이 손실 가능성이나 부담을 피하고자 기본 설정을 그대로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주목하여 '손실이나 부담을 피하려는 개인의 행동 경향'이 제시문 (가)~(다)에 나타난 '개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하려는 경향'과 관련됨을 읽어낼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로 많은 국민들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면 국민들의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B국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다)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는 것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포착하고 나면 (라)의 사례는 (가)~(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즉 개인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하며 그러한 행동이 모이고 반복될 때 그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주체가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다)의 현상과 연결됨을 분석할 수 있다.

3. 대학발표 예시답안

(가)~(다)의 공통점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이 다수에 의해 반복됨으로써 계획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모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을 한다. (가)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나)에서는 사회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여성을 가리키는 고상한 표현을 선택하며, (다)에서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의 빠른 경로를 선택한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다수에 의해 반복된 결과, 거시적으로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공공의 이익(가), 고상한 표현의 의미 하락(나), 교통 체증(다)이 도출된다.

(가)~(다)의 차이점은 결과의 긍·부정성, 그리고 개인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가)의 결과인 공공의 이익은 긍정적이나 (다)의 결과인 교통 체증은 부정적이며, (나)의 결과인 단어의 의미 변화 현상은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긍·부정성을 따지기 어렵다. 한편 (가)의 결과는 개인의 의도인 이익 추구와 상충하지 않으나, (나), (다)의 결과는 고상한 단어를 써서 여성을 예우하고 타인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주려던, 또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려던 개인의 본래 의도와 상충된다.

(라)는 (가)~(다)에서 나타나는 공통 구조를 다른 주체가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다)와 연결된다. 즉 B국은 국민들의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저축 프로그램 가입을 기본값으로 설정했고, 개개인이 선택을 바꿀 때 생길 수 있는 손실과 부담을 피하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면 그 결과가 모여 국민들의 노후 대비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다)에 나타난 개인의 행동 원리와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거시적 결과를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측하여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897자)

삼자비교 연습

☸ 비교 : 공통범주(공통점)를 전제로 함

① 양자비교

⇨ 명확한 기준과 대립적 차이를 활용한 비교

② 삼자비교

⇨ 최소기준(1~2개)활용으로 명확하게 비교.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X

⇨ 먼저 (가)VS(나) 비교 후 (다)에 비교기준 적용

연습 1

'짜장면, 짬뽕(면), 볶음밥' 을 비교하시오.

비교 기준	짜장면	짬뽕(면)	볶음밥

연습 2

'축구, 배구, 핸드볼' 을 비교하시오.

비교 기준	축구	배구	핸드볼

연습 3

'국어, 수학, 영어' 를 비교하시오.

비교 기준	국어	수학	영어

연습 4

'모래, 자갈, 돌멩이, 바위' 를 비교하시오.

비교 기준	모래	자갈	돌멩이	바위

연습 5 아래 제시문의 '전통적 예술론' '웨이츠', '디키', '비어즐리'를 비교하시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에 대한 최초의 답은 예술은 모방이라는 것이다. 그 후 이 물음에 대해 콜링우드는 감정의 표현, 톨스토이는 감정의 전달, 벨은 의미 있는 형식 등이라고 답을 하였고 이러한 답들은 대체로 예술의 본질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것들로 예술을 정의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몬드리안의 추상화가 감정의 표현이나 전달 등과 관계가 있는가, 혹은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감정의 표현인데 이것도 예술로 보아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통적 예술론**으로 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웨이츠는 이러한 전통적 예술론의 답변들이 모두 실패임을 주장한다. 전통적 예술론은 서로 다른 예술 작품들에 무언가 공통적인 본질이 공유되고 있다는 가정 위에서 성립하고 있는데, 웨이츠는 모방이나 표현 혹은 전달 등이 모든 예술에 존재하는 본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양한 예술에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본질이 아니라 가족 유사성일 뿐이라고 말한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저런 면에서 닮아 있지만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을 갖기 어렵듯이, 예술도 하나의 본질 대신 유사성의 네트워크만이 있다는 것이다.

웨이츠가 말하고자 하는 예술이라는 개념은 '열려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주어진 대상이 기존 개념의 구성원 일부와 닮기만 하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개념의 테두리가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예술이란 어떠한 본질도 없는 열린 개념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한계를 거부하는 것이 예술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어떤 시대에 예술의 본질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이 다음 시대에 부정된다면 지금 합의하는 예술의 어떤 본질도 부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디키와 비어즐리 등은 웨이츠의 예술론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통적 예술론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디키는 예술 작품이란 인공품으로서, 예술계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인공품의 어느 국면에다가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수여해 놓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비어즐리는 예술 작품은 필연적으로 예술에만 있는 고유한 어떤 기능을 달성하는 것인데, 그 기능은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디키의 정의에서는 예술계가 어떤 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비어즐리의 정의에서는 미적 경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디키와 비어즐리의 예술 정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이 의의가 있는 이유는 웨이츠의 주장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예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분류적 속성과 평가적 속성이 구분되어야 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가령 전통적 예술론에서 말한 감정의 표현 등은 예술과 비예술을 가르는 기준인지, 바람직한 예술의 기준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디키의 주장에 의해 감정의 표현 등이 실패한 예술도 예술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비어즐리의 주장을 통해 좋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가치적인 속성을 제외하고서는 예술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지게 되었다.